

2024-2025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2024. 10.



소 방 청
National Fire Agency 

목 차

I. 추진배경	1
II. 화재발생 분석	3
III. `23-`24년 추진결과 및 분석	7
IV. 겨울철 화재안전추진 대책	10
1. 새로운·대규모 위험 예방관리 강화	11
2. 안전한 겨울을 위한 분야별 대책 추진 ...	15
3. 대국민 화재안전 홍보 및 교육	19
4.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구축	22

< 2024-2025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 >

□ 추진개요

- (추진근거) 화재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기간/대상) '24. 11. 1 ~ '25. 2. 28.(4개월) / 전국 소방본부·소방서

(1단계) 안전 환경조성



(2단계) 집중 예방활동

'24. 11. 1 ~ 11. 30.

'24. 12. 1 ~ '25. 2. 28.

- (목표/전략)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 / 4대 핵심대책 12개 과제

□ 중점 추진사항 ⇨ 배터리공장, 지하대공간, 숙박시설 등에 중점

① 새로운·대규모 위험 예방관리 강화

- 화재위험성 높은 배터리공장 등 조사, 중점관리대상 지정, 외국인 근로자 교육
- 지하대공간(전기자동차 충전소 포함) 등 소방시설 차단행위 불시단속
- 숙박시설 표준 피난행동요령 제작, 업소별 피난행동요령 작성 등

② 안전한 겨울을 위한 분야별 대책 추진

- 대한민국 핵심 수출 사업장, 노후산업단지 등 기업활동 자율안전관리
- 성탄절,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안전한 여가·문화활동 환경조성
- 반지하 주택, 쪽방촌, 다문화가정 주거취약시설 화재안전 확보

③ 대국민 화재안전 홍보 및 교육

- 국민과 함께하는 “불조심 강조의 달” 집중 운영(11월)
- 완강기 사용법 홍보, 외국인 소방안전교육 교재배포, 안전문화 캠페인
- 전기·가스공사 등 유관기관 협업, 대국민 참여 이벤트 등 국민 접점 홍보

④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구축

- 기상특보 등 위험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긴급구조통제단 선제적 가동
-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설비 점검 등 대형화재 사고 대비·대응체계 마련
- 성탄절 등 화재취약 시기별 특별경계근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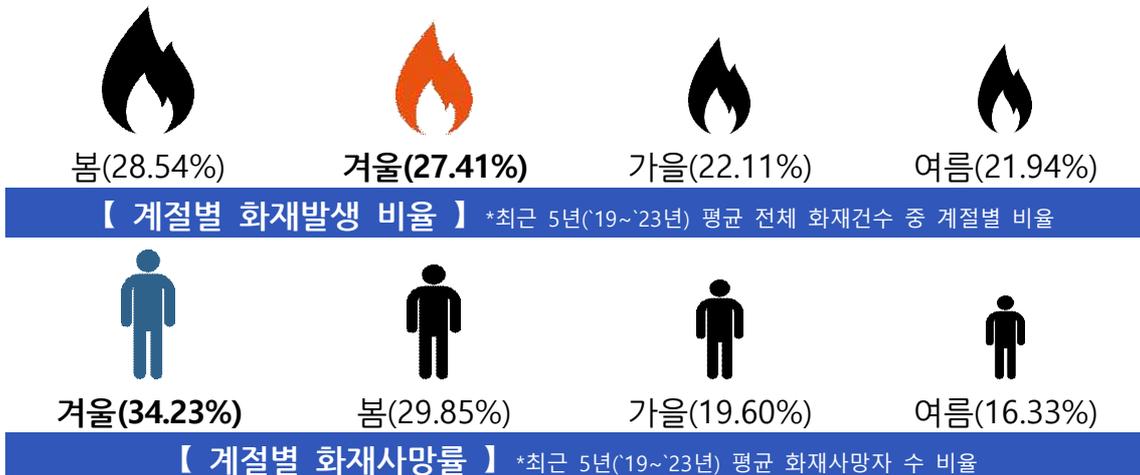
I. 추진배경

□ (추진근거) 화재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시행

□ (화재특성) 겨울철은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한 날씨로 화기사용 및 실내활동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화재위험요인 증가

- 공기 중 습도가 현저히 낮아져 모든 물체가 건조해지고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붙을 수 있음
- 겨울철은 기온이 낮아져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 특히 전기장판, 히터, 전기난로 등 전열기구 화재위험성이 높아짐
- 겨울철은 주로 밤에 난방기구를 사용하고 취침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빠르게 감지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커짐
- 최근 5년간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고(27.41%), 화재로 인한 사망자 점유율이 매우 높음(34.23%)



- **(사회특성)** 낮은 기온, 밤이 길어지는 등 계절적 변화가 두드러지는 계절로 자연환경, 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줌
 - 추운 날씨로 인해 외출이 줄어들고 집이나 실내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며 에너지 소비 증가
 - 가족 중심 활동 증가,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 크리스마스 및 연말 등 다양한 축제가 열리면서 사회 전체가 축제 분위기
 - 난방기기, 겨울의류 등 겨울철 관련산업이 활성화되고 겨울 관광지가 활기를 띠면서 지역 경제에 기여
- **(환경특성)** 한반도는 대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기온이 매우 낮아지고,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를 더욱 낮춤
 - 겨울철 공기 중의 수증기량이 적어 습도가 낮아지고 건조한 공기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호흡기 질환 유발
 - 습도가 낮아지면 정전기가 자주 발생, 화재 위험성은 높아지고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구름이 많아 일조량 감소
 - 겨울철에는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강수량이 적고 일조량이 적음

《 '24년 겨울철 기후전망(기상청) 》

- ◆ **(기온)** 기온은 평년(0.1~0.9℃)보다 대체로 높고, 찬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 변화가 크겠음
- ◆ **(강수량)** 강수량은 평년(71.2~102.9mm)과 비슷, 맑고 건조한 날이 많고,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서해안과 강원영동에 지형적인 영향으로 다소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음

Ⅱ. 화재발생 분석

1. 최근 이슈화재 분석

- **(배터리 공장)** 최초 배터리 1차 폭발 후 연쇄 폭발까지 25초 소요, 그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화재 발생('24.6.24. 경기 아리셀 화재)
 - 현행 제도하에서 소방관서의 관할지역 소방대상물의 제조 제품·물품의 화재위험성 파악하는데 한계, 전 세계적으로 전지산업 성장
 - ※ 전지공장(개소) : '18년 321 → '19년 367 → '20년 484 → '21년 522 → '22년 610 (1.9배 증가)
 - 산업시설 내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고, 재난발생을 대비한 소방 안전교육 미흡으로 초기 대처능력 미흡

- **(지하대공간 전기차)** 화재발생 시 스프링클러설비 연동정지 스위치를 조작 화재피해 규모 확대('24.8.1.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 보급중심 정책과 함께 안전대책도 이행해왔지만, 조기진압이 어려운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보완 필요
 - 화재발생에도 불구하고 근무자가 소방시설 임의 조작으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막대한 재산피해 발생

- **(숙박시설)** 화염과 연기가 복도와 계단으로 급속히 확산, 대피과정에서 다수 인명피해 발생('24.8.22. 경기 부천 숙박시설 화재)
 - 숙박시설 입실 전에 피난시설 사용방법, 피난방법 등을 고지하지 않아 화재발생시 대피에 어려움 발생
 - 언론보도를 통해 잘못된* 대피방법이 국민들에게 전달, 화재발생 분석을 통한 화재대피 표준행동요령 정립 요구
 - * “화장실서 샤워기 틀어놓고 기다렸다. 기적의 생존” 언론보도('24.8.23. SBS뉴스)

2. 최근 5년('19년~'23년) 겨울철 화재발생 현황 및 추이

□ (화재발생) 최근 5년간('19~'23년) 매년 평균 10,531건(27.41%) 화재가 겨울철(12월~익년 2월)에 발생, 계절별 화재 발생에서 2위를 차지함

※ 봄 : 3.1~5.31, 여름 : 6.1~8.31, 가을 : 9.1~11.30, 겨울 : 12.1~익년 2.28

- 화재평균(건): 봄(10,964) → 겨울(10,531) → 가을(8,495) → 여름(8,429)

- 화재발생률(%): 봄(28.54) → 겨울(27.41) → 가을(22.11) → 여름(21.94)

○ 최근 5년 전체 화재발생 건수는 평균 2.12% 감소 추세, 겨울철 화재발생 건수는 '21-'22년 겨울철부터 감소 추세에 있음



【 최근 5년 전체 화재발생 추이 】



【 최근 5년 겨울철 화재발생 추이 】

3. 최근 5년('19년~'23년) 겨울철 인명·재산피해 현황

- **(인명피해)** 최근 5년간('19~23년) 계절별 화재발생 현황 분석에 따르면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사망, 부상)는 다른 계절에 비해 높음
 - 겨울철 인명피해 평균 725명, 인명피해 비율(전체인명피해 대비) 30.07%
 - 인명피해(명): 겨울(725) → 봄(660) → 가을(532) → 여름(495)
 - 화재 인명피해률(%): 겨울(30.07) → 봄(27.36) → 가을(22.05) → 여름(20.53)
 - 겨울철 사망자 평균 105명, 사망률(전체사망자 대비) 34.23%
 - 화재 사망자 수(명): 겨울(105) → 봄(91) → 가을(60) → 여름(50)
 - 화재 사망률(%): 겨울(34.23) → 봄(29.85) → 가을(19.60) → 여름(16.33)
 - 겨울철 인명피해는 화재 14.5건당 1명, 사망자는 화재 100.49건당 1명 발생
 - 인명피해 1명 발생시 출동(건): 겨울(14.52) → 가을(15.98) → 봄(16.61) → 여름(17.02)
 - 사망자 1명 발생시 출동(건): 겨울(100.49) → 봄(119.96) → 가을(141.59) → 여름(168.58)
- **(재산피해)** 최근 5년간('19~23년) 계절별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의 경우 겨울철은 전체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 겨울철 재산피해액 평균 2,035억원, 재산피해 비율(전체인명피해 대비) 21.45%
 - 재산피해액(억원): 봄(3,418) → 여름(2,388) → 겨울(2,035) → 가을(1,645)
 - 재산피해비율(%): 봄(36.03) → 여름(25.17) → 겨울(21.45) → 가을(17.35)
 - 겨울철 재산피해액은 '19년부터 '22년까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 '23년은 전년도 겨울철 대비 34.9%(959억원) 감소함
 - '19년(1,201억원) → '20년(1,701억원) → '21년(2,735억원) → '22년(2,477억원) → '23년(1,788억원)
 - 전체 화재출동 1건당 평균 재산피해액 24,695천원, 겨울철 화재는 19,324천원 발생하여 사계절 중 재산피해액이 가장 낮음

4. 최근 5년('19년~'23년) 겨울철 화재발생 장소·원인

- (발생장소) 최근 5년간('19~23년) 겨울철 화재건수 및 인명피해는 주택(단독, 공동)에서 많이 발생, 재산피해는 공장·창고에서 많이 발생
 - 화재건수: 야외, 단독주택,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 등
 - 사망자: 단독주택, 공동주택, 자동차, 기타주택, 공장, 야외 등
 - 부상자: 공동주택, 단독주택, 자동차, 공장, 음식점, 야외 등
 - 재산피해: 공장, 창고, 자동차, 동식물시설, 단독주택, 판매시설 등

발생순위	화재건수	사망	부상	재산피해
1	야외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장
2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창고
3	공동주택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4	자동차	기타주택	공장	동식물시설
5	음식점	공장	음식점	단독주택
6	공장	야외	야외	판매시설
7	기타건축물	숙박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8	창고	기타건축물	기타건축물	기타건축물

【 최근 5년간 겨울철 장소별 화재발생 피해 】

- (화재원인) 최근 5년간('19~23년) 겨울철 화재원인 48.97%가 부주의
 - 화재원인(%): 부주의(48.97), 전기적요인(24.42), 기계적요인(10.58) 順
 - 부주의: 담배꽂초, 불씨·화원방치, 음식물조리, 쓰레기 소각 順
 - 전기적요인: 미확인단락, 절연열화 단락, 트래킹 단락, 접촉불량 順
 - 사망원인(%): 미상(34.54), 부주의(27.10), 전기적요인(14.12) 順
 - 부주의: 담배꽂초, 가연물 근접방치, 기타, 불씨·화원방치 順
 - 전기적요인: 미확인단락, 절연열화 단락, 기타, 압착손상 단락 順

화재발생·인명피해 많은 주택·공장·창고·숙박시설 안전관리 필요

Ⅲ. 2023-2024년 추진결과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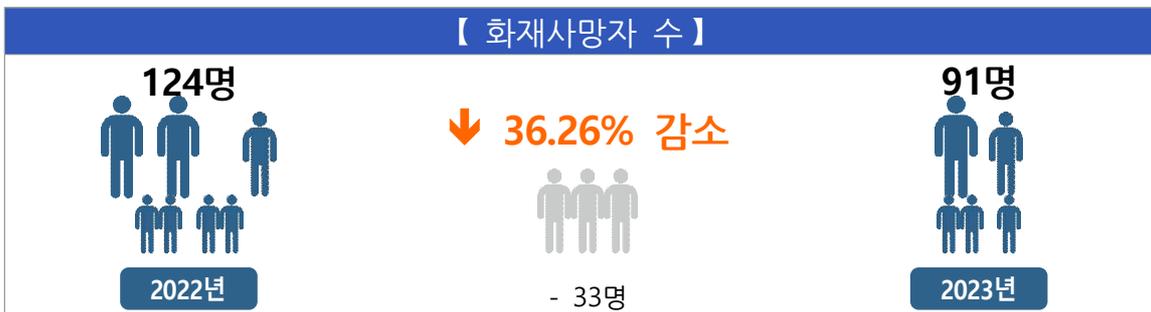
1. 추진결과

□ (총괄) 전년 대비 화재발생, 인명피해(사망, 부상), 재산피해 모두 감소

□ (화재발생) '22년 11,165건 ⇨ '23년 9,285건 / 1,880건(20.25%) 감소 ↓



□ (화재사망) '22년 124명 ⇨ '23년 91명 / 33명(36.26%) 감소 ↓



□ (화재부상) '22년 703명 ⇨ '23년 635명 / 68명(10.71%) 감소 ↓



□ (화재피해) '22년 2,747억원 ⇨ '23년 1,788억원 / 959억원(53.61%) 감소 ↓



2. 결과분석

□ **(정책목표)**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정책목표로 수립한 결과 전년 겨울철 대비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목표 달성함

○ 대형화재 발생건수, 인명피해(사망자·부상자), 재산피해 모두* 저감

* 화재발생 1건(3건→2건), 사망자(10명→3명), 부상자(47명→45명) 저감

구분	일자	대상	화재원인	인명피해		재산피해 (백만원)
				사망	부상	
'22년	'22.11.27.	강원 양양군 헬기(HL9678)	기타	5	0	1
	'22.12.29.	경기 과천시 갈현고가교	미상	5	47	34,391
	'23.02.18.	강원 횡성군 케이프라이드	미상	0	0	17,369
'23년	'23.12.25.	서울 도봉구 대상타운현대A	부주의	2	30	121
	'24.01.02.	경기 군포시 가야마을	전기적 요인	1	15	96

○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은 1회성 목표가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할 목표로 금년도에도 지속 추진 필요

□ **(특수시책)**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을 중점과제로 선정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였으나 화재피해가 오히려 증가함

○ 관계자, 소방관서, 소방청 합동으로 피해저감 안전대책을 추진

- 소방관서 주관 관계자(관리소장, 안전관리자·보조자) 소집 안전교육
-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관리자 화재 피난안전 매뉴얼 제작 등

《소방청 추진》

- ◆ 아파트 입주자용 및 관리자용 피난안전 매뉴얼 제작·보급(16,400부)
- ◆ 비상방송설비 자동 안내방송(대피 먼저 → 살피서 대피) 표준음원 제작·보급
- ◆ 아파트 관련 민간단체 ↔ 소방청 업무협약(MOU) 체결('24.1.11.)
- ◆ 아파트 관리 앱(아파트 아이) 활용 '아파트 대피계획 바로 세우기' 캠페인('24.2.14)
- ◆ 엘리베이터 타운보드에 "아파트 대피계획 수립 캠페인" 송출(kt is, 포커스미디어코리아)

○ 전년('23-'24년) 대비 아파트 화재발생, 인명피해가 오히려 증가*함에 따라서 금년('24-'25년)에도 아파트 안전대책 지속 추진 필요

* 전년 대비 아파트 화재발생 14건, 사망자 10명, 부상자 32명 증가

□ **(전통시장)** 야간 시간대 화재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철시 이후 심야시간 상인회, 점포주 중심의 자율안전관리체계 확립

○ 자율소방대 활성화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자율소방대의 역할, 경비지원* 등을 규정한 **자율소방대 지원조례 제정**(‘24.10월 기준 13개 자치단체)

* 자율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장비, 물품 등 지원, 교육·훈련 실시

○ **자율안전관리 강화**로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가 전년대비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있어 그간 추진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인 운영 필요

*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발생 5건 감소(‘23년 25건→ ‘24년 20건)

□ **(화재피해)** 전년 대비 전체적인 화재건수, 인명피해는 감소하였으나, 화재건수, 인명피해 등이 증가한 일부 대상은 안전관리 강화 필요

○ **공동주택**(화재건수·사망자·부상자 증가), **위험물제조소등**(화재건수·부상자·재산피해 증가), **공장**(사망·부상자 증가), **숙박시설**(부상·재산피해 증가)

증가순위	화재건수	사망	부상	재산피해
1	자동차	공동주택	공동주택	판매시설
2	의료시설	기타주택	음식점	위험물제조소등
3	공동주택	음식점	숙박시설	학교
4	학교	오락시설	공장시설	위생시설
5	건강시설	연구, 학원	건강시설	숙박시설
6	항공시설	공장시설	자동차시설	연구, 학원
7	공공기관	-	학교	전시장
8	위험물제조소등	-	위험물제조소등	야외

【 전년대비 화재발생 및 피해가 증가 】

○ 화재 주요원인을 분석하여 화재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증가한 대상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필요**

□ **(자율안전)** 소방관서 중심의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어 민·관이 함께 하는 안전관리로 전환이 필요하고 소통채널 확대 필요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방계획서 작성 등 전반적인 자율안전관리 능력 배양 필요

○ 관계인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소방관서는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운영실태를 확인·지도

IV. 겨울철 화재안전추진 대책

목표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추진 전략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

새로운대규모위험
예방관리강화

안전한 겨울을
위한 분야별 대책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신속한 현장대응
체계 구축

4 대
핵심
대책

1 새로운·대규모 위험 예방관리 강화

- ① 최근 이슈화재 집중예방
- ② 인명피해 우려대상 자율안전능력 확보
- ③ 화재예방관리체계 정비·강화

2 안전한 겨울을 위한 분야별 대책 추진

- ① 안전한 기업활동을 위한 자율안전관리 강화
- ② 안전한 여가·문화활동을 위한 안전관리
- ③ 취약계층 화재안전 확보

3 대국민 화재안전 홍보 및 교육

- ① 불조심 강조의 달 집중 운영
- ② 정책홍보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 ③ 생활밀착형 화재예방 및 안전활동

4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구축

- ① 긴급구조통제단 대응태세 확립
- ② 대형화재 사고 대비·대응체계 마련
- ③ 취약시기 특별경계 근무 실시

1. 최근 이슈화재 집중예방

□ 배터리공장 등 새로운 위험요소 평가 모니터링 체계 확립

- 화재위험성이 높은 제품·물품의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소방관서 관할지역 내 현황 자료 파악
- 배터리 제조공장 등과 같이 화재위험성이 높음 제품 등을 생산하는 대상을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
- 외국인 근로자 취업 전 소방안전교육 교육 지원, 외국인용 소방안전교육 표준교재 및 화재대피 지원물품 보급*

* 9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어, 우즈베크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 지하대공간 등 소방시설 차단행위 불시단속 강화

- 아파트 관리주체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점검과 소방관서의 불시단속을 통한 불법행위 단속 강화
 - 불시단속은 소방·피난·방화시설의 밸브·스위치 차단·정지 여부에 대한 부분조사를 매월 각 시도별 동일 날자·시간에 실시
- 화재 조기감지와 신속한 소화 가능토록 성능개선* 유도,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공동주택 관계인 소방관서 즉시 신고** 교육·홍보 강화
 - * 예 : 화재감지기(열→연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표준형→조기반응형) 교체 등
 - **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발생을 소방기관에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소방기본법)
- 지하층 전기차충전시설·물품하역장·쓰레기분리수거장 지능형 CCTV 설치(적외선 감지) 유도, 쓰레기 방치금지(지도)

□ 숙박시설 투숙객 등 화재대피체계 확립

- 표준 피난행동요령 마련(소방청*), 피난행동요령 작성지도(소방관서) 업소 특성에 맞는 피난행동요령 작성(관계인)

* 숙박시설 화재피난 표준행동요령 정립을 위한 TF 운영('24.9.19.)

- 투숙객에게 피난구조시설 종류 및 사용법 등 입실시 안내(유인시설), 대피방법·피난시설 사용방법 등 객실비치(무인시설)
- 완강기 등 소방시설 부실점검은 엄정처벌, 소방시설 활용법 등 교육훈련을 통해 활용률 제고

2. 인명피해 우려대상 자율안전능력 확보

□ 장애인·노인관련시설 초기 대응능력 확보

- 청각장애인을 위한 눈으로 보는 화재감지기 설치,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맞춤형 관계기관 민·관합동 간담회 개최
- 재난 예방·대비·대응 능력 평가를 위한 “소방안전환경 경진대회” 개최
- 불시 무각본 대피훈련, 의료진 등 관계자 피난구조설비(구조대 등) 사용법 숙달 훈련, 거동 상태에 따라 층별 병실 배정(보행가능 고층, 보행불가 저층)
- 자력대피 곤란시설 ‘안전인식 형광밴드’ 제작, ‘야광피난안내도’ 설치, 피난약자시설 인명정보 현황판 부착(피난층), 피난 유도라인 설치
※ 환자 상태별로 각기 다른 색상의 밴드를 착용, 긴급상황에서 위험군 밴드 환자 우선 대피

□ 의료시설 피난안전 확보

- 혈액투석, 내시경(수면), 산부인과, 수술실이 있는 병·의원은 재난 발생을 대비한 환자대피 훈련 실시
※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환자 대피훈련 이행실태 확인 불시훈련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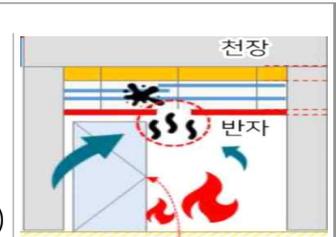
- 근무자 대상 입원·진료환자 피난방법 등 행동요령 교육, 보건소 등과 협업하여 혈액투석 병상, 외상환자 병상 현황 등 공유
- 중·소병원(2,419개소) 소방시설 소급('19.8.6.~'26.12.31.) 설치 독려, 지도·감독
※ 스프링클러·자동화재속보 설비(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19.8.6.)
- 소방관서, 의료시설 안전관리자 안전정보 공유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필로티 구조 건축물 안전관리

- 필로티 구조(1층 주차장 등 활용)의 점질방, 사우나, 산후조리원, 요양원, 의료시설, 숙박시설 중점관리 관계자 교육
- 1층 외기와 면하는 부분(천장의 반자내부)에 배관이 지나가는 경우 전기열선을 사용한 보온조치 자제 지도(보온제 활용)
- 반자내부 전기열선 사용시 규격품 사용, 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감지기 설치*, 옥상문 출입구 개방, 1층 출입구 방화문 설치
* 반자 내에 전기열선 등으로 화재발생시 화재조기 감지로 신속한 초기대응

< 화재 사례 >

- '22.03.29. ○○산부인과(충북 청주) / 연기흡입 등 47명
- '21.12.09. ○○오피스텔(부산 동래) / 인명피해 21명(부상)
- '17.12.11. ○○다가구주택(충남 천안) / 차량 6대 전소
- '17.12.21. ○○스포츠센터(충북 제천) / 인명피해 69명(사망 29, 부상 40)



□ 초고층(고층)건축물 예방·대응체계 마련

- 자위소방대, 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 및 임무숙지 등 교육훈련, 소방관서 합동소방훈련, 소방계획서 및 피난계획서 작성 등 지도점검
-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 운영실태 평가(미흡한 경우 관계인 조치), 바닥면에 피난용 피난안내 동선 설치
- 피난계단, 비상·피난용 엘리베이터, 피난안전구역, 피난시설 등에 대한 관리·운영실태 중점확인

3. 화재예방관리체계 정비·강화

□ 화재예방강화지구 정비

- 화재위험성(전통시장 등 취약시설), 소방서와의 거리·인력·장비 여건 등을 종합적 검토하여 대상 추가 또는 현행 지정범위 확대 추진
- 화재위험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부분조사, 관계기관 소방교육 및 합동 소방(통로확보)훈련, 화기취급 행위제한(화재예방법 제17조)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정비

- 화재·인명피해 위험성 등 최근 사고발생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 대상 추가(배터리 제조공장, 숙박시설 등) 또는 현행 지정범위 확대 등 추진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25년 화재안전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행, 관계기관 합동 점검추진(연 1회 이상)

□ 반복적 화재 발생대상 집중관리

- 최근 5년('19~'23년) 3회 이상 화재가 발생한 대상물 원인분석,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410개소), 행정지도·서한문 발송·소방교육 등
-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대상처에 재발방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명령(화재예방법 제14조), 소방관서는 내용을 확인 적정성 평가

□ 화재안전조사의 체계적 운영

- 계절특성, 예방관리를 고려 화재안전조사 대상 선정(매월, 5% 이내)
-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개최, 조사결과 공개제도 합리적 운영
- 일반조사, 부분조사(불시단속)로 구분하여 추진
- 자체점검 불량대상 표본조사 중점실시,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중 검토, 점검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공기안전매트 설치 아파트에 대한 설치 현황 및 관리실태 확인

1. 안전한 기업활동을 위한 자율안전관리 강화

□ 대한민국 핵심 수출 사업장 안전 강화

-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방위산업, 조선, 바이오·의학, 데이터센터 등은 소방·전기·가스·산업안전 등 합동 안전점검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에 대한 화재안전 교육 강화,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 인력 운영실태 평가
- 공장 화기감독자는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 배치, 위험물 허가량 및 저장·취급 기준 준수여부 확인

□ 공장밀집 노후 산업단지 안전관리 확보

-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482개소)* 관계자와 협의체 구성, 관계기관(소방, 산업안전, 전기, 가스 등) 간담회, 화재안전 컨설팅 지원
* 한국산업단지공단 통계자료(현황, 통계)
- 비상상황을 대비한 산업단지 업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가칭 화재안전협의체 구성·운영(소방관서,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업체 협력)
- 용접, 용단 등 화기취급, 굴착행위 시에 소방관서 사전통보제 운영, 화기 취급 작업 사전 관리·감독 강화(고용기관 등 협업)

□ 물류창고 화재안전 관리

- 특급·1급 이상 물류창고는 소방·지자체·업체간 협의체 구성·운영, 소방관서↔물류창고 관계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소방·피난·방화 및 전기시설(전기열선, 전기온풍기, 전열기구 등) 안전점검, 단기근로자 소방훈련·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지도감독
- 화재위험작업(용접·용단 등) 일정 정보공유, 소방계획서(화재예방법) 및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국토부 고시) 작성 검토

□ 대형 공사장 화재 예방관리

- 화기취급 공사장 상시 감시체계 마련, 용접·불티 등 화재예방 안내·홍보, 냉동·냉장창고 등 대규모 건축공사장 지도 점검(공정율 70% 이상)
-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중점 확인(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포함),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확인
- 소방관서, 지방노동청, 지자체 등 건설현장 화재안전 관계기관 간담회, 영상회의, 안전관리자 합동 안전교육 추진 등 기관 간 협력

□ 화재위험성 물질 제조·저장·취급시설 화재예방

-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위험물 제조소(제4류 제1석유류, 알코올류 중점), 주유취급소, 폐기물재활용 업체(폐유, 폐식용유 등), 육가공업체(튀김기 사용공장)
- 무허가·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불시 화재안전조사 실시 위법사항은 엄중조치
- 비상상황 대피 피난계획 수립,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화기취급 실태 등에 대한 소방관서 지도점검 추진

※ 리튬 1차 전지공장 사업장에 대한 화재 대피용 마스크 비치(권고)

□ 소방계획서 작성 매뉴얼 개선

- 최근 이슈화재(배터리 제조공장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반영하기 위한 표준 소방계획서 작성매뉴얼 수정·보완
- 소방관서, 소방안전관리자 등 의견수렴하여 매뉴얼 개선('25.1.1.)

2. 안전한 여가·문화활동을 위한 안전관리

□ 성탄절, 연말연시, 설 명절, 지역 축제·행사장 화재예방

- 대규모 행사 재해대처계획서(공연법 제11조) 사전 검토 철저, 강풍·건조시 등은 불꽃놀이* 제한 요청, 행사 시 운영자 측에 화재예방조치 요구

*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화약류 사용계획서 확인

- 소형열기구(풍등 등) 날리기 행사 시 불꽃을 사용한 행사 제한*, 정월 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시 운영자 측에 화재 예방·대응조치 당부

* 불꽃 직접사용 → 불꽃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LED 등)

□ 펜션, 캠핑장 등 휴양시설 안전강화

- 펜션·휴양림(숙박시설) 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1개 이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연성가스 경보기 설치* 확인

* LPG(바닥면으로부터 0.3m 이하), LNG(천장으로부터 0.3m 이하)

- 캠핑장, 야영장 소화기 비치, 텐트 내부 취사·화기취급 금지 안내 및 자율안전점검표 배부, 관계인 야영객에게 안전용품 대여

□ 놀이시설·공연장·영화상영관 등 피난로 확보

- 독서실, 사우나, 수면방, 안마시술소, 산후조리원, 고시원, 클럽, 다중이용업소 등 비상구 확보, 이동식난로 사용금지(예방법시행령 별표1)

- 콘서트장, 실내공연장, 미디어아트(뮤지엄 등) 등 관계자 안전교육, 공연장 재해대처계획(공연법 제11조) 평가(예방·대응 합동) 필요시 보완요구

□ 국립공원 대피소 특별 화재안전조사

- 국립공원(지리산^(7개소), 설악산^(4개소), 덕유산^(1개소), 소백산^(1개소)) 대피소(13개소, 소방·공단 합동, 11월)

- 비상구 확보, 유도등(비상조명등) 설치, 방염커튼, 위험물·가스 시설,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소화기 확보(침실, 보일러실, 취사구역), 관계자 교육

3. 취약계층 화재안전 확보

□ 전통시장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성

- 소방관서·상인회 협업 「안전하기 좋은 날」 운영(매월 둘째 주 수요일), 소방·지자체·전기·가스·상인회 합동 간담회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자율소방대 주도의 전통시장 철시 전 안전점검, 심야시간 예찰활동(23:00~익일 04:00), 초기화재 대응·훈련실시 등 자율안전관리 유도(표창)
※ 전통시장 철시 전(21시) 화재예방 방송, 보이는 소화기 비치, 찾아가는 소방교육훈련

□ 반지하 주택, 쪽방촌 등 주거취약시설 화재안전 확보

- 쪽방촌, 주거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하우스 등 주거취약시설 현장 행정지도, 의용소방대원 등 자원봉사자 취약시설 안전방문
- 의용소방대 ↔ 소방서 ↔ 민간 봉사단체(라이온스클럽, 크로바봉사단 등) 협업체계를 구축 주거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지원
- 반지하 주택의 탈출로 확보를 위한 개폐식 방법창으로 교체토록 독려,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개폐식 방법창 설치 지원 협의

□ 외국인, 다문화가정 소방안전 확보

-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협업체계 구축, 상공회의소와 소방관서 MOU 체결 사업장 외국인 안전관리 강화
- 산업시설,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등 재난 발생시에 대피방법 교육 실시(소방관서, 지방노동청 협업)
- 소방안전교육 강화, 옥내소화전 사용법·동영상 제작·보급, 한글·외국어 동시 표기 스티커 제작 홍보

1. 불조심 강조의 달 집중 운영

□ 국민과 함께 공감·소통하는 화재예방 대국민 홍보

- 목표 : “국민과 함께하는 불조심 환경 조성”
- 3대 추진전략* 8개 중점과제 추진
 - * ①소방안전문화 기반 구축, ②국민 맞춤형 문화콘텐츠 개발, ③국민 참여형 소방안전문화 확산
 -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입상작 활용 현수막 게첩 및 전시회* 개최
 - * ①19개 시도 본부별 전시, ②전시관 작품 전시(1주일간), ③메타버스(가상공간) 전시
- 전국 12세 이하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개최
 - * 주최 및 주관 : 소방청 및 19개 소방본부 한국화재보험협회(장관상 등 10점)

2. 정책홍보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 「외국인 근로자 취업 전 소방안전교육」으로 화재대피 역량 강화

- 고용노동부 등과 협업하여 취업 전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제 대상, 연간 약 7만명)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실시
 - ※ (기간/방법) '24. 8월~ / 소방서-외국인 취업교육장(전국 12개) 연계를 통한 방문교육
- 교육효과 증대를 위해 맞춤형 소방안전교재(9개국어 번역본 1만부) 및 화재대피 물품(2천점) 제작·보급
- 지속가능한 교육운영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기관의 자체 안전강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지원(연2회, 취업교육기관 관계인 대상)

□ 완강기 사용법 홍보 강화

- 소방안전리자·다중이용업주(종업원 포함) 소방안전교육 시 완강기 교육을 필수 교육으로 추진하고, 체험시설에 대한 홍보 강화*
* 완강기 체험시설: 90개소(체험관 13개소, 소방서 77개소) 및 15대(이동체험차량)
- 완강기 설치장소별(장애물 유무), 완강기 종류별(일반·간이 등)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콘텐츠 제작·보급(영상 및 인쇄물)
- 숙박업 관련 단체 및 숙박플랫폼과 협력하여 지속적·다각적 홍보
※ 대한숙박업중앙회·한국호텔업협회 누리집 게재 및 플랫폼(야놀자 등) 홍보

□ 공공기관·민간 홍보역량 접목 정책홍보 강화

- (주)농심, GS리테일 등 업무협약기관 플랫폼* 활용, 안전정보 콘텐츠 게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차량용 소화기 신청·보급 이벤트 추진
* 농심 신라면 패키징, GS편의점 키오스크 등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협업*, 화재 예방을 위한 대국민 참여 이벤트 등 국민 접점 홍보전략 마련

□ 화재 예방 등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

- 화재 유형별 데이터 기반 위험성 홍보, 국민의 자발적 안전 수칙 실천 유도를 위한 Key-메시지 및 레거시·뉴미디어 통합 홍보전략 추진
- 화재 예방·대처 요령 캠페인 영상 제작 및 TV 등 주요매체 광고, 노인·장애인·외국인 등 안전약자 대상 맞춤형 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
※ 예) 소방청 누리집 장애인 전용 페이지 개설, 정책 소식지 '점자·QR' 반영 등

□ 차량용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홍보

- '24.12.1. 신규 또는 소유권 변동되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차량용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홍보(기존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 차량용 소화기는 본체용기 표면에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 확인

3. 생활밀착형 화재예방 및 안전활동

□ 전기화재 저감 활동

- 지자체·동물병원 '반려인 등록' 시 인덕션 화재예방 홍보, 화재위험 3대 제품(전기장판·히터·열선) 안전사용 강화
- '트래킹 클리너' 등 활용 분전반·콘센트, 전기제품 먼지·분진 제거로 화재 유발요인 사전 예방, 전기안전관리기관과 업무협약(MOU) 추진

□ 난방·연료 관련 안전관리

- 전기 분·배전반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콘센트 화재 시 자동소화 기능이 있는 '화재안전콘센트' 사용 안내, 가스타이머 설치(권고)
- 전국 시도 소방본부 합동 화재안전조사 인력풀 구성·운영, 화재안전 조사 시 전기·가스 안전교육 및 대국민 전기화재 예방 홍보 지원

□ 음식점 주방(후드·덕트, 숯불) 화재 예방

- 단체급식 공장·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 일반음식점 주방 후드·배기덕트 기름 찌꺼기 청소 지도, 완비증명 연계 배기덕트 설치 방법 안내
- K급 소화기,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독려(대규모점포 입점 음식점, 집단급식소), 숯불 사용 음식점 현황 파악 및 화재 안전관리 추진

□ 화목보일러 주택화재 예방

- 산림 인접 화목보일러 설치 주택 자동소화용구, 소화기 등 설치 (지자체,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업 추진)
- 화목보일러 소화기 비치 안내 및 화목보일러 설치·유지관리 시 주의 사항 및 관리 방법 등 화재예방 홍보·안전교육(의소대 및 통·반장 등 활용)

1. 긴급구조통제단 대응태세 확립

□ 최악의 상황 고려, 사전 대비체계 구축

- 119신고 폭주 시 비상 접수대 증설(평시 346대 → 폭주시 846대) 및 근무자 보강 등
- 진압·구조 장비 100% 가동상태 유지 및 재난통신망 활용도 제고
 - 신속한 초동대응·상황전파를 위해 재난망 연락체계(PS-LTE*) 구축
 -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활용을 위해 지원기관(경찰, 보건소 등) 간 사전 그룹핑
- 핫 라인(소방청↔시·도 본부, 본부↔소방서) 구축·운영을 통한 기상상황 등 재난정보 실시간 전파·공유체계 구축, 소방관서 비상연락망 점검(월1회)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방재기상정보시스템(위험기상 예·발생 등) 및 정례·수시브리핑, 유관기관, 언론 등 정보 활용 사전 대비 강화

□ 기상특보 등 위험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긴급구조통제단 선제적 가동

- 기상특보 단계부터 관계기관과 상황판단회의 등 비상대응체계 운영
 - ※ 신고건수 급증 시 대응단계 발령, 적극적인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및 동원령 요청
- 유사시 지자체·단체 등 긴급구조지원기관 인력·장비 적극 지원 요청

2. 대형화재 사고 대비·대응체계 마련

□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설비 점검·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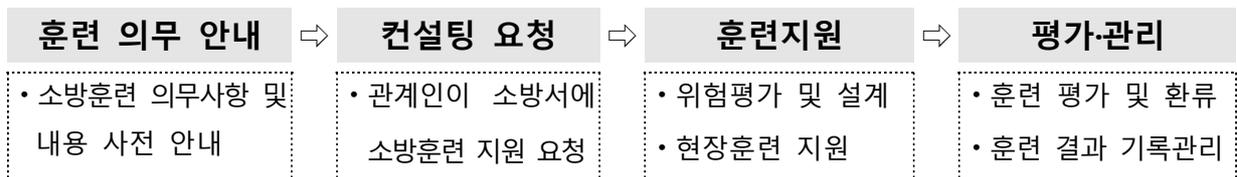
- 겨울철 한파로 인하여 동결·동파되지 않도록 소방장비 유지관리 상태 확인 및 출동차량에 염화칼슘, 모래 등 제설장비 적재
-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매물, 단수 등으로 사용 불가능한 소방용수 시설 사전 확인·관리*, 산림인접 비상소화장치 점검 및 주민 교육
 - * 소화전 스프링클러 개폐 여부 등 소방용수시설 확인·정비(11~12월)

□ 소방차 출동 환경 개선

-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지속 관리 및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출동로 확보, 공공 화재진압시설(비상소화장치, 보이는소화기함) 설치
* 소방·경찰·지자체 등 '긴급자동차 출동환경 개선 협의회'를 통한 행정 협업
-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홍보 등을 통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긴급 출동 방해 차량 등 강제처분 교육·훈련 실시

□ 소방훈련 컨설팅 및 합동소방훈련 실시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소방훈련 의무사항 안내, 대상물별 위험특성을 고려한 소방 훈련 설계 검토, 지원 및 평가·관리



- 다수 인명피해 우려 건물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계인 교육, 소방대 현지적응훈련 및 합동소방훈련 실시

3. 취약시기 특별경계 근무 실시

□ 성탄절 등 화재 취약 시기별 특별경계근무 실시

- 성탄절, 연말연시, 설날, 한파 등 취약시기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 근무 실시로 대형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 최소화
- 현장 안전점검·위험요인 사전제거, 신속한 현장대응활동 체계 구축,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및 비상연락망 상시 유지

붙임 1

최근 5년간('19년~'23년) 계절별 화재 통계

계절	연도	화재건수	사망자(명)	부상자(명)	비고
봄 (3-5월)	2019년	11,868	83	5588	
	2020년	11,340	134	516	
	2021년	9,498	66	553	
	2022년	11,153	91	588	
	2023년	10,962	83	597	
	합계	54,821	457	7,842	
	평균	10,964	91	1,568	
여름 (6-8월)	2019년	8,706	48	495	
	2020년	8,408	55	440	
	2021년	8,099	53	345	
	2022년	8,284	67	502	
	2023년	8,647	27	443	
	합계	42,144	250	2,225	
	평균	8,428	50	445	
가을 (9-11월)	2019년	8,449	56	521	
	2020년	8,962	70	467	
	2021년	7,870	48	376	
	2022년	8,764	72	475	
	2023년	8,431	54	519	
	합계	42,476	300	2,358	
	평균	8,495	60	471	
겨울 (12-2월)	2019년	9,348	97	523	
	2020년	11,185	105	596	
	2021년	11,672	107	644	
	2022년	11,164	124	703	
	2023년	9,285	91	635	
	합계	52,654	524	3,101	
	평균	10,530	104	620	

※ 봄 : 3.1~5.31, 여름 : 6.1~8.31, 가을 : 9.1~11.30, 겨울 : 12.1~익년 2.28

붙임 2

최근 5년간('19~'23년) 3회 이상 화재발생 통계

구분	합계	공동주택	교육연구	공장	근생	복합	업무	판매	자원환	기타
합계	410	157	19	118	17	47	1	15	14	22
서울	2	1	1							
부산	57	35	2	5	2	9	1	3		
대구	8	4		3		1				
인천	77	34	2	11	7	14		4	2	3
광주	29	24	2			2			1	
대전	40	27	3	3	4	3				
울산	17	6	1	7		1		1	1	
세종	-									
경기	30	14		3		8		3	1	1
경기북	2				1			1		
강원	1				1					
충북	14		2	6				1	3	2
충남	1	1								
전북	3	1			1			1		
전남	2			1						1
경북	1			1						
경남	123	8	6	77	1	9		1	6	15
제주	-									
창원	3	2		1						

※ 비고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추출자료(화재발생 주소등이 상이한 경우 통계에 미반영될 수 있음)
- 화재발생 3~18회 발생(세부현황은 별첨)